

↑ 코스피 2610.38 (+40.67)	↑ 코스닥 781.01 (+12.03)
↑ 금리 (연율) 2.960 (+0.136)	↑ 환율 (원/달러) 1346.25 (+12.55)

공사비 상승, 시멘트가 주범?... 근본원인 외면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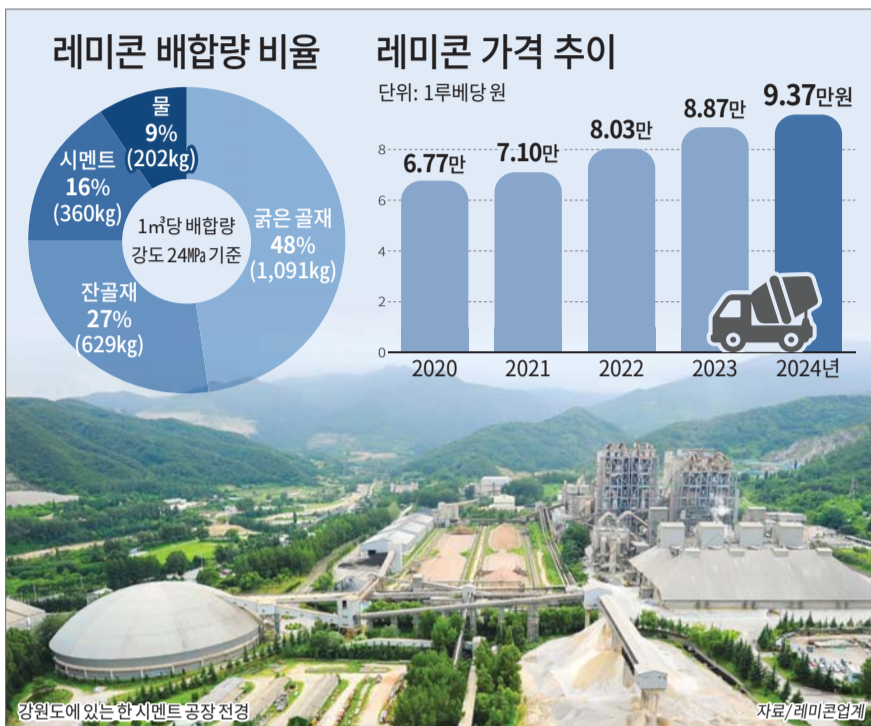
정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서 사실상 시멘트가 '주범'으로 지목

레미콘 원가서 시멘트 비중 16% 전체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 미미 시멘트 수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시멘트가 못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멘트를 공사비 인상의 주범으로 내몰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5%로 크게 올랐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사비 인상을 막는 것이 시멘트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공사비(건축비)에서 시멘트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땅값(택지비), 건축비, 각종비용(금융·마케팅·일반관리비, 세금 등), 그리고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멘트와 직결되는 건축비에는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등이 들어간다. 건축자재에는 철골, 레미콘 그리고 내부를 치장하는 인테리어 자재 등이 속한다. 레미콘은 다시 시멘트, 모래·자갈 등 골재, 그리고 물을 섞어 만든다. 레미콘이 굳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은 골재 76%, 시멘트(플라이애시, 고로슬래드 등 포함) 17%, 물 7%를 배합해 만든다.

가장 많이 쓰는 강도 24MPa 레미콘은 1㎡(1루베)당 자갈 등 굵은 골재 1091kg(48%), 모래 등 잔 골재 629kg(27%), 시멘트 360kg(16%), 물 202kg(9%)이 들어간다. 레미콘가격은 이들 자재비에 운반비(인건비 포함), 타설비(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해 매긴다.

2020년 당시 1루베당 6만7700원이었던 레미콘 가격은 7만1000(2021년)→8만300(2022년)→8만4500(2023년 1월)→8만8700(2023년 5월)→9만3700(2024년)으로 올랐다.

각종 자재비만 감안하면 레미콘에서 차지하는 시멘트의 가격 비중은 16%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비용까지 추가

하면 시멘트값이 레미콘값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게다가 전체 건축비에서 레미콘값 그리고 시멘트값의 비중은 더 미미하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25.7평 아파트 건축시 들어가는 레미콘 양은 약 42.4루베 정도다.

정부는 현재 고시 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달 고시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는 ㎡당 210만6000원이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당 231만9000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해외에서 시멘트 수입하는 것도 지원키로 했다. 해외란 중국을 말한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배터리 구독경제 구축 5년 내 매출 2배 목표”

(67조490억원)

LG에너지솔루션 비전공유회

새 비전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ESS·UAM 등 Non-EV 사업 확대 SW,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확보 차세대 전기 기술리더십 강화 추진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LG에너지솔루션 첫 비전공유회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우리는 더 이상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배터리 진단·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구독 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확대시키고, IRA를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안정적인 EBITDA 수익성을 창출하여 기업가치로 인정받겠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열린 비전 공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말 공식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새로운 비전은 'Empower Every Possibility(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다.

LG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서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 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비전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궁극적 지향점을 담고 있다”라며 “잠재되어 있는 모든 힘을 깨우는 에너지로 우리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들이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비전의 의미”라고 말했다.

◆ 4대 중장기 전략 발표... “5년 내 매출 2배 이상 성장 목표”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2023년(33조 7455억원) 대비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고,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하고서도 10% 중반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달성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ESS, UAM 등 Non-EV 사업 확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LFP·고전압미드니켈(Mid-Ni)·46-시리즈 등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 ▲BaaS, EaaS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확보 ▲전고체·건식전극 공정 등 차세대 전기 기술리더십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Non-EV 사업을 적극 확대해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가장 먼저 EV 사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ESS 사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도 투입 역량을 확대해 시장의 변화에도 부침이 없는 탄탄한 사업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EV사업 내 제품 및 고객 다변화에도 집중한다.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넘어 LFP와 LMFP,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Affordable)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인다. 원통형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를 적극 고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확대로 탄탄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BMS는 물론, BaaS(Battery-as-a-Service)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배터리 리스(Lease), 렌탈(Rental), 재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3면에 계속>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임대료 줄이자... 유통업계, 사옥 이전 분주

내수침체로 수익성 개선 시급 희망퇴직 단행 등 인건비 축소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가 효율성 강화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지난해부터 인건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본사 이동을 통해 비용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은 내년 2월에 사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이전할 사옥은 영등포시장에 위

치한 KB영등포 타워다. SSG닷컴은 자회사 패션 온라인 플랫폼 W컨셉과 함께 해당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SSG닷컴의 사옥 이전은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2018년 이마트에서 분리돼 별도법인이 된 SSG닷컴은 종각역 인근 종로 센트로폴리스에 있다가 2022년 7월 강남역삼동 센터필드로 본사를 옮겼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에 속

도를 내고 있다. 본사 이전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료가 낮은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역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서울 강남구 본사 사옥을 대치동에 위치한 사옥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낮은 임대료에 따른 비용 절감이 목적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소비침체에 따른 가전 수요 감소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용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 여사 '황제 관람' 논란에 유인촌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 들어” /사진 뉴스스
- ▲ 행안위, 국감 불출석한 21그램 대표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 ▲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 47곳 중 17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 국힘 윤리위, '허위사실 유포'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의뢰



- ▲ 조규홍, 자생한방병원 대통령실 특혜 의혹에 “감사 검토” /사진 뉴스스
- ▲ 유승민 “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법대로 심판해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안보·인적교류 등 협력 강화

韓-필리핀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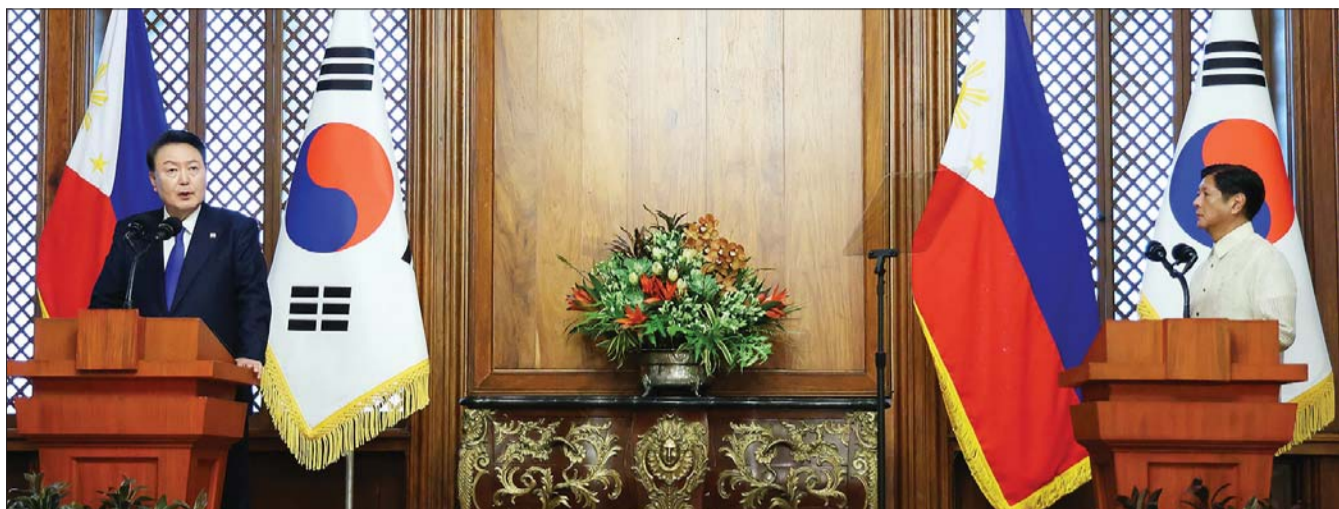
尹 대통령 “관계의 새로운 장 열어
방산 협력, 필리핀 군 현대화 참여”

라구나호수 도로·해상교량 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 20억 달러 사용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

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용 ‘전장용 MLCC 시장선점’ 주문

(삼성전자 회장)

필리핀 삼성전자 생산법인 방문
2028년 MLCC 시장 9.5조 전망
“혁신 이끌고 끊임없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동차용 전장사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법인을 방문해 적응세라믹콘덴서(MLCC) 사업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장용 MLC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LCC 시장이 2023년 4조원에서 2028년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LCC는 쌀 한 톨보다 작은 크기에 수 백층의 유전체와 전극이 겹쳐있는 첨단 제품으로, 300m / 와인잔을 채운 양이 수 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은 MLCC 수요가 높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IT용 MLCC가 1000개 정도 탑재되는 것에 비해 전기차에는 전장용 MLCC가 1만8000~2만개가 탑재되고, 가격도 3배 이상 높아 삼성전자는 전장용 MLCC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MLCC를 개발·생산해 왔으며, 전장용 MLC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8년 중국 텐진에 MLCC 2공장을 건설했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2년 부산 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필리핀법인(SEMP HIL)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선두에 서서 혁신을 이끌어가자”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수원과 부산사업장은 연구개발 및 신기술, 원료 생산을, 중국 텐진과 필리핀 생산법인을 대량 양산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MLCC의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제조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전장용 MLCC 매출 1조 달성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하

만 등 전자 부품 계열사의 역량을 총 집결해 전기차 부품 가치사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일찌감치 전장사업의 유망성을 높이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왔다. 부회장 시절인 2016년 디지털팩트(디지털 계기판)와 카오디오 분야 세계 시장 1위 기업인 하만을 인수 합병한 바 있다.

하만은 인수 첫 해인 2017년 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2023년 매출 14조3885억원, 영업이익 1조173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올리버 집세 BMW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 경영자들과 만나며 전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14억 확인”

금감원, 수시검사 잠정 결과
은행 외 계열사 부당대출 적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손태승 전 회장)이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해 14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원 등 총 14억원 규모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태승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개입했으며,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태승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실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中 수입, 시멘트값 인하위한 ‘압박용’ 분석

» 1면 ‘공사비 상승, 시멘트가...’서 계속

아파트 등 건축시 중국산 시멘트가 쓰일 날도 머지 않은 셈이다. 대한건설직자재협회는 오는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관련 발표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멘트 수입에 대해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업계와 정부의 이같은 공조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결국 시멘트값 인하를 위한 ‘압박용’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부처·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멘트 수입은 국내 기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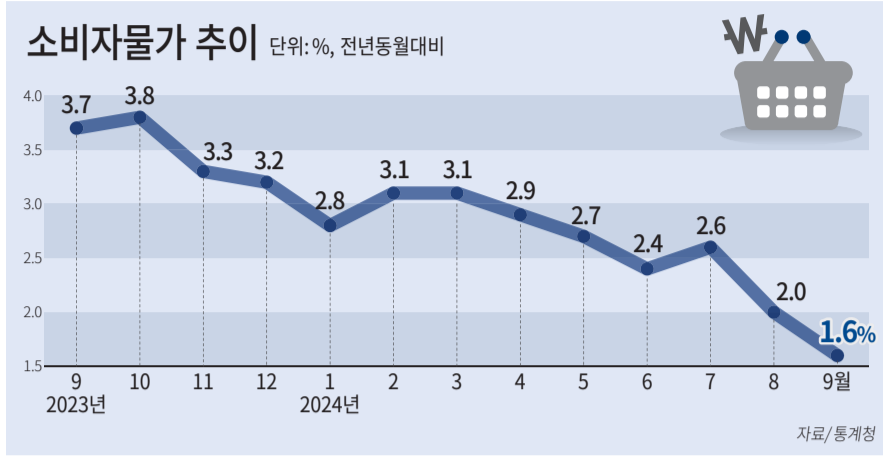
엇갈리는 금리 전망... 전문가들 “물가대응 등 인하 가능성”

한은 주중 기준금리 결정

소비자 물가 안정세... 美 빅컷
가계부채, 집값 상승 등 변수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이번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인하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보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불안이 커지는 만큼 오는 11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1년 8월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린 뒤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는 이달 11일을 제외하고 오



는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한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 민간소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올 3월 3.1%에서 6월 2.4%로 떨어진 뒤 9월 1.6%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았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목표치

를 하회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기 상황이 부진해지자 지갑문을 닫는 소비자는 늘었다. 상품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지수)는 8월 기준 102.2로 1년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1월을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한 뒤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투자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건설기성은 5월 4.6% 감소 이후 4개월째 마이

너스다. 설비투자도 지난 8월 전월 대비 5.4% 줄었다.

오는 11월까지 현 3.5%의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기준 730조967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5조6079억원 늘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해선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8월 6억8451만원으로 한달전(6억7620만원)과 비교해 1.23% 상승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하고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

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낮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조용구 신용증권 연구원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둔화하고, 미국도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규제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애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 우려는 약해졌지만, 성장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은도 경기와 물가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논란

“현행 대비 20~50대 수령액 7000만원 감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현행 제도 대비 약 70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자동조정장치가 재정 지속성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급액 감소는 필연적이지만, 미래 세대가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중인 20~50대의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약 7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도입한 ‘자동 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36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할 경우 그 해부터 65세가 되는 1971년생이 2060년까지 25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연금액 100만원, 물가상승률 2% 기준)을 기준으로 약 3억 8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까지 약 7000만원 줄어든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정부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드는 연금개혁”이라며 “국회 논의 시 자동삭감장치나 다름없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없이는) 미적립 부채(재원 부족에 따라 다음 세대가 메꾸게 되는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G에너지솔루션 비전공유회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구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무음극·흑연계’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총력

» 1면 ‘LG에너지솔루션 비전...’서 계속

아울러 시장을 혁신할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고체 전지의 경우 리튬 음극을 뺀 ‘무음극’ 제품 및 ‘흑연계’ 음극 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바이폴라’ 반고체 전지 및 황·소듐을 적용한 저가 고효율 제품, 리튬금속을 활용한 항공용 경량 제품도 양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소형·ESS 등 사업부 별 미래 시장 선도할 핵심 전략 발표

자동차·소형·ESS 등 핵심 사업부별 중장기 시장 세부 전략 발표도 이어졌다. 자동차전지사업부는 ‘근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북미 시장 확고한 1등 구축 및 유럽 시장 지위 강화’를 중장기 목표로 한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2026년까지 글로벌 생산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기차 캐즘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2028년에는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처형 제품, 건식전극 공정 활용 LFP 제품 등을 통해 소재, 공정, 제품의 차별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 2030년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역·고객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소형전지사업부에서는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 압도적 1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빌리티 환경에

최적화된 46-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양산하여 다양한 차종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동공구·청소기·B BU(배터리 백업 장치) 등 고효율 제품 및 AI 데이터 서버 등 신규고객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ESS전지사업부 또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8년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ESS 시스템 통합(SI) 글로벌 톱 3를 달성해 5배의 매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단계별로는 2025년 미국 ESS 셀 생산 본격 양산을 필두로 북미 시장을 선점에 나서고 고용량, 장수명의 신제품 출시와 LGES 버텍스 등을 통한 SI 역량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 달성을 위해 ▲성장(Power of Growth) ▲도전(Power of Challenge) ▲실행(Power of Action) ▲협업(Power of Collaboration) 핵심가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업계 리더로서 위상을 지켜낼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응원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더 멋진 풍경과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비용 효율화·수익성개선... 비상경영 ‘고삐’

» 1면 ‘임대로 줄이자...’서 계속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 가치가 높은 강남 대치동 본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전 시기나 장소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에 있던 본사를 강동구 이스트센트럴타워로 옮겼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임대료를 약 40%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스트센트럴 타워 보증금이

20억원대로, 시그니처타워의 보증금인 4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코리아세븐의 사옥 이전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세븐일레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44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다. 물류비용상승, 합병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감소되면서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PB브랜드를 키우는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온 역시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7월 사옥을 롯데월드타워에서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했다. 롯데온

은 2020년 출범 후 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해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업을 축소해나가고 있다.

이밖에 11번가는 지난달 서울역 인근 본사를 경기도 광명시 유플래닛 타워로 이전했다.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다. 이에 앞서 11번가는 지난해부터 사업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희망 퇴직을 받은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자 업계가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게 임대료와 인건비다. 당분간 기업들의 본사 이전 움직임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안덕근 “체코원전 금융 지원, 사실무근”… 경제회복 다짐

〈산업부 장관〉

산업부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사업 공방
동해 가스전 사업비 5년간 5761억
1차공 시추 별도 “예타 대상 아냐”
무역금융 확대로 수출 회복 견인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체코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체코 원전 입찰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로 파베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원전 투자 의향서 영어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며 “금융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

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 분석 자료를 인용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

조달, 시공사업을 해주는 것”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덤핑 수주’ 등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다”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 중 올해 12월 예정인 1차공 탐사시추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의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원전과 관련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에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글-애플, 인앱결제·망사용료 도마 위… “공정경쟁 환경 조성해야”

방통위

구글·애플 반독점, 과징금 부과 지연
이통 3사 담합 의혹, 해결책 모색
김 직무대행 “공정위와 교통정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SNS)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한 셈이다.

◆빅테크 기업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해야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채택됐다.

최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인앱결제강제금지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 바 있다. 이는 역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 “단호한 규

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미지불 조치해야”

구글코리아가 국내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지난 2020년의 경우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었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방

통위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로 인해 나서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지상파 재허가 추진”…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의사를 밝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여당, 배추값 폭등 질타… 농식품장관 “이례적 폭염 탓”

농식품부

정부 농산물 대책에 대한 비판 고조
송 장관, 수급 관리·가격 조사 대응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배추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고온현상이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된 탓에 배추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 예측이 빗나가 배추 값 등이 폭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은 추석 때보다 배추가 포기당 2000원이나 더 비싸, 정부의 시장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추를 직접 집

어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며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쾌청해져서 추석 지나 준(準)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서 “이른바 ‘금배추’는 이미 8월부터 예견된 바 있다”며 정부의 농장대응론을 제기했

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27일 기준 9963원으로 1만 선까지 근접했다가 지난 4일 8848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최근 배추값은 여전히 작년 대비 30% 가까이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t)을 들여왔고, 이달 한 달간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자

재 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질타 및 정부발 대책 요구도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대책에 대해 묻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을 오늘(7일)부터 3개월간 조사하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다만 “쌀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해보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2024 국정감사

與,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적도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만 26개월 걸려 재판 시작 전 재판부 변경 요청 납득 어려워 부인 김혜경씨 언급에 野 불편한 기색 비쳐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는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가 되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통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과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김건희 여사 집중 공세 증인 불출석·거부 등 ‘난항’

행안위·국토위, 대통령실 불법 증축공사 의혹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 본격질의 지연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해 의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질의가 지연됐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 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술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탈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친한계, 첫 비공개 만찬... ‘당 위기의식·공멸 가능성’ 공유

의원 20여명과 2시간 30분간 진행 김건희 특검 이탈표언 “친한계 야나”

친한(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김형동·고동진·김재섭·박정훈·장동혁·진종오·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 윤석열계나 친 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

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축대밭으로 만들 것(을 우려했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축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유튜브·SNS 등 디지털 브랜딩으로 'BNK 알리기' 총력

BNK금융, 지방금융 이미지 탈피
젊은세대 대상 디지털 브랜드 확장

유튜브 구독자 약 18만9000명
돈스토리 최고 시청수 약 40만명
인스타그램 구독자 약 8만명
부산 프로게임단 'FearX' 지원

BNK금융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게임 등 다양한 채널로 디지털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방금융 특유의 고착화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BNK금융만의 브랜드를 인지시킨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BNK금융'의 구독자는 약 18만9000명이다. 이는 DGB금융그룹 대표 채널인 'iM타운'의 약 4배에 달한다. JB금융그룹 내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광주은행' 채널 보다는 약 5배 가량 많은 숫자다.

'BNK금융' 유튜브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은 국내·외의 경제적 이슈 및 주요 쟁점을 전문가 패널을 통해 소개·해설하는 교양 프로그램 '돈스토리' 시리즈로, 돈스토리 시리즈의 평당 최고 시청 수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채널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



이렇다 보니가 네팔에서도 잘 나간다는
의사, 변호사가 왜? 한국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다는 네팔 사람들, 그 이유
BNK금융그룹이 유튜브를 통해 연재 중인 '돈스토리'의 한 장면. /유튜브 BNK금융그룹 채널

내 관광지, 축제, 지역 문화 등을 소개하는 '당신이 몰랐던', 부산 내 지역별 맛집을 소개하는 'B공개밥상' 등도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BNK금융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내 구독자 수에서도 3대 지방금융 및 계열사(BNK·DGB·JB)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

10~3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BNK금융의 대표 계정 'BNK금융그룹'의 구독자는 약 8만명으로, 이는 DGB금융의 'iM파크'와 JB금융의 'JB금융그룹'의 구독자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BNK금융은 지난 5월부터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이터널 리턴' 등 종목에 참여 중인 부산 연고지 프로게임단 'FearX'의 활동을 지원하고, 팀명을 'BNK FearX'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네이밍 프로게임단'을 보유한 유일한 지방금융지주가 됐다.

특히 BNK FearX는 국내 최대 프로게임 리그인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도 출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개최된 LCK의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약 410만명에 달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LCK 내에서 '네이밍 팀'을 보유한 것은 신한은행·한화생명·하나은행·OK저축은행에 이어 BNK금융

이 5번째다.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의 이러한 행보를 '디지털 브랜딩'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석한다.

디지털 브랜딩은 스트리밍·SNS·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기업과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 수단으로, TV, 신문 등 기존 매체보다 형식이 자유롭고,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10~40대에 특히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여겨진다.

통상 지방금융은 기업 규모가 4대 금융그룹(신한·KB국민·하나·우리) 대비 영세하고, 기존에 구축한 기업 브랜드도 특정 지역 내에 한정된 만큼 디지털 브랜딩에서도 4대 금융 대비 열세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인구 유출 및 지방 경제 쇠퇴로 각 지방금융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비대면 영업 확대에 힘쓰고 있는 만큼, BNK금융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BNK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

BNK금융 관계자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는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는 친숙한 매체"라며 "지역에 국한된 영업 환경에서 벗어나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BNK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아름인 개편 맞아 매칭 기부 이벤트

신한카드가 기부 서비스인 '아름인(아름인)'을 개편한다.

신한카드는 7일 '아름인 개편을 맞아 매칭 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름인은 지난 2005년 개설한 기부 전용 사이트다. 디지털 기부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운영한다.

기부금액에 따라 ▲아름새싹 ▲아름묘목 ▲아름나무 ▲아름열매 등이 자란다. 재미요소를 담아 기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별도로 운영하던 사이트를 신한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서비스로 이전했다. 이달 고객이 기부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 학습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기업·고객·사회의 상생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단기급등 피로감?...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 급감

지난달 상승거래 비중 48.5%
서초·종로구 22%로 낮아져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부터 상승거래 비중은 50.3%, 52.1%, 52.5%로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9월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4개 자치구(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와 종로구의 상승거래 비중 감소가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지난 7월 매매거래 중 61.2%가 직전거래와 비교해 가격이 올라 거래됐고 8월 59.6%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9월은 22.2%를 나타내며 상승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종로구도 지난 8월 54.2%를 나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아파트. /전지원 기자

내던 상승거래 비중이 9월 22.2%로 낮아졌다. 9월 거래 건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 들면서 가격도 상승동력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한편 중구, 송파구는 9월에도 상승거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했다. 중구는 신당동이나 황학동의 중소형 면적대가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와 재건축

개발단지 등의 거래가 이어져 상승거래 비중이 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대상주로 불리는 리센츠와 엘스는 9월 전용면적 84㎡가 27억 1500만원, 27억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각각 6500만원, 7000만원 올랐다.

리센츠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A씨는 "토하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음

에도 푹푹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들은 신고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일환으로 대출제한이 진행, 매매시장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달라진 대출조건이나 한도, 그동안 단기간에 오른 가격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증가하던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며 "계약 후 30일이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월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출규제로 관광과 단기급등에 대한 가격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이 줄더라도 선호지역이나 개발호재 등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매수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w13@



KB국민카드 레고랜드 파크 등 놀이공원 할인행사

KB국민카드는 가을을 맞아 놀이공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달 7일까지 '파크, 호텔 혜택 가득한 레고랜드 몬스터 캐슬' 행사를 운영한다. 레고랜드 파크 성인 1일 이용권 결제 시 성인 또는 어린이 추가 1인 무료입장 가능한 기프트코드 2장을 제공한다.

내달 9일까지 레고랜드 호텔 조식 패키지 결제 시 주중 25%, 주말 및 공휴일 20% 할인을 제공한다. 투숙 가능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오는 12월 1일까지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을 할인한다. KB페이 결제 시 2만 1000원, 카드 결제 시 2만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타 쿠폰 등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김정산 기자

캠코, 국유부동산 온비드 통해 대부·매각

10일까지 4일간 총 385건 진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일까지 4일간 총 38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14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71건이 포함됐다. 해당 물건들은 오는 11일 개찰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정유업계, 'AI·DX' 혁신 가속... 청정 에너지시대 발 맞춘다

HD현대오일뱅크

AI 기반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SK이노베이션 '오션허브' 사업화 GS칼텍스 업무 전반에 DX 적용 에쓰오일 통합 IoT 플랫폼 구축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정유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시대를 맞아 공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 개발·생산 등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정유사들은 외부 시스템 대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에 AI를 적용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등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SK이노베이션이 'AI 비파괴검사(IRIS) 자동 평가 솔루션'으로 열교환기 결함 검사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는 AI CCTV 활용하여 여수공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GS칼텍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맞춤형 플랫폼을 업무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재 구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구매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의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장 정비에 필요한 자재들의 구매 이력·입찰 정보·시장 동향 등 방대한 정보를 종합한다.

공장의 배관 교체가 필요할 경우 AI가 유사한 원자재를 추천하고 가격 추

이·업체별 경쟁력·견적 등도 분석해 최적 안을 제공한다. 기존 구매 절차 대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는 높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복합플렉스(C LX)에 자체 개발한 설비 관리 시스템인 오션허브(OCEAN-H)를 구축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오션허브는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지난 60여년간 SK이노베이션이 축적한 데이터를 다양한 상황에

활용한다.

오션허브는 정유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에 동종 업체들에 판매돼 비즈니스 모델로도 가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수스페셜티케미칼, KP케미칼, SK케미칼 등 울산 지역의 5개 회사에 플랫폼을 판매에 약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GS칼텍스는 허세홍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한 디지털 전환(DX)을 업무 전반으

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공장의 전 업무 영역을 DX 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원유 가격 전망, 구매, 물류, 판매, 시장 예측 등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정량화해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에쓰오일도 부산 관리·운영하던 센서를 하나로 모아 통합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해 유지·보수 비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에쓰오일은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사적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디지털 공장,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워크 등 3개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 핵심과제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등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한 2단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AI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고용안정·복지혜택 강화...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관건

기아 임단협 찬반투표

2차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 결정 기본급 인상 등 성과 보상 최대 수준

기아 노사가 올해 임단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8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평생 사원증 혜택 복원'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이 합의안 통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4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무과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에 더해 출산휴가를 기



기아 광명 오토랜드 공장.

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지난달 도출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

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하고,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근 신입사원 500명 채용하는 등 고

용 안정 및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평생사원증 혜택이 사라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2년 전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평생 동안 차량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 해줬다. 그러나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평생사원증 혜택이 지나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복지 혜택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는 3년으로, 할인은 25%로 축소했다.

당시 기아 노사는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현대차의 평생사원증 혜택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평생사원증 제도 원복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임협에 포함된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도입도 주요 변수다. 기아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고과 등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직 전체가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일반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일반직 노동자회는 성과연동제 도입이 결국 사측의 노조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 직근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차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8일 진행된다.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

LS마린솔루션, LS빌드윈 편입...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 새출발

시공기간 단축 등 시너지 기대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드윈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 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원가 절감, 품질 유지,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구분규 대표가 LS마린솔루션의 대표를 겸직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LS전선과의 해상, 육상 전력 케이블 사업의 시너지도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대부분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편입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중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LS마

린솔루션의 올해 매출은 LS빌드윈의 4분기 매출이 반영되어 전년도 708억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총액도 지난 6월 말 기준 1945억원에서 약 27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은 올 상반기 전남해상 풍력사업 참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운 5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대급 매출이 기대된다.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SOV(해상풍력 건설지원 선박) 사업 추진 등으로 내년 매출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광양항 물류 자동화 설비 사업 수주

AGV 등 830억 규모 제작·납품

현대로템이 무인이송장비(Automated Guided Vehicle, AGV) 실적 확대를 통해 첨단 스마트 물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발주한 약 828억원 규모의 광양항 자동화 부두 무인이송장비(AGV) 제작·납품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9년까지 총 44대의 항만 AGV와 관제시스템, 충전기 등 관련 인프라 설비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AGV는 길이 16

m, 폭 3m, 높이 2.3m 크기의 대형 항만 AGV로 최대 65톤 중량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다. 전기 구동 방식이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0분 충전만으로도 8시간을 구동할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품질의 설비들을 적기 납품해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날 광양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항만은 물론 스마트팩토리 등 물류 자동화 설비 시장 공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AI 시대, 글로벌 변화 가속

‘AI 트레이너’ 글로벌 고소득 직업... 韓, 인프라·인재 부족

해외 경쟁력 강화 위한 필수 과제
인재양성 교육체계 정책 지원 절실
정부-기업, 지속적 협력 투자 필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인간 ‘AI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트레이너의 시급이 200달러에 달하는 등 고소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프라, 교육 체계 미흡 등의 문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트레이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환각 오류(hallucinations)나 데이터 오류를 찾아내 피드백을 제공해, AI가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기에는 이미지가 자동화인지 당근인지 구별하는 단순한 작업 수준에 불과해 학부생이나 저임금(시급 약 2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AI 인간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미지.

만원) 인력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역사학자, 과학자 등 전문 인력까지 요구될 정도다. 심지어 일부는 박사 학위까지 소지해야 한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의학, 금융,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AI 트레이너들을 적극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성에 따라 시급이 최대 40~50달러(약 5~6만

6000원)에 이르며,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시급이 26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오픈AI는 ‘휴먼 데이터 팀(Human Data Team)’이라는 이름의 연구팀을 구성해 AI 트레이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환각 오류를 줄이고 AI의 글쓰기 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AI 개발과 연구에 대한 관심은 높

아지고 있으나,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인프라와 교육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령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인재의 중요성이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인재풀(pool)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AI 연구원과 개발자 등 AI 관련 직군 전체에 걸친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I 트레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와 업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AI 이노베이션 스쿼어를 통해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삼성, LG, 네이버 등 민간 기업들도 AI 캠프와 인턴십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AI 관련 전공을 신설하는 등 학문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트레이너와 같은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정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교육 간의 괴리가 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적했다.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관리와 피드백 작업이 중요해질수록 AI 트레이너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AI 트레이너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Z세대가 이끄는 ‘텍스트힙’ 열풍... 독서의 새 패러다임

자아 표현·소셜미디어 소통 수단
AI 기술로 맞춤형 독서 경험 제공
출판사 등 AI 기술·SNS 적극 활용

국내·외 Z세대 사이에서 ‘텍스트힙(Text Hip)’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7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스타,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한 독서 콘텐츠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텍스트힙은 ‘TEXT’와 ‘HIP(멋지다의 신조어)’의 합성어로, 독서나 글

쓰기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취미 활동을 넘어 그 자체를 트렌디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책을 읽고 1분 내외의 감상을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올리는 ‘북톡(BookTok)’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도서 판매량이 6억 6900만 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텍스트힙 열풍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독서율이 7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독서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Z세대를 중심으로 ‘읽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텍스트 힙 트렌드는 단순한 독서량 증가를 넘어 Z세대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들에게 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를 넘어, 자아 표현과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스트힙 트렌드에 맞춰, 관련 업계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AI 기술을 활용해 챗봇과 오브제북 등 개인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AI 오브제북’을 시작으로,

책의 주인공이나 저자의 페르소나와 대화할 수 있는 ‘AI 페르소나 챗봇’, 전자책을 더욱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AI TTS’ 기능 등 AI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AI 기반 독서 추천 기능인 ‘AI 스마트 키워드’도 선보였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남긴 리뷰를 바탕으로 AI가 도서를 추천하고, 해당 도서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단순 키워드가 아닌 문장으로 안내해 독자들이 더욱 쉽게 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밀리의 서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가 종이책의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데서 착안해 종이책 구독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난 7

월 출시한 종이책 구독 상품 ‘밀리 컬렉션’은 구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종이책을 매달 집에서 배송받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출판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출판사 민음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민음사는 지난 2019년부터 ‘민음사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24.4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다. 채널에서는 출판사 직원들이 직접 패널로 등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SKT “에너지·통신·메모리 등 혁신 논의”

내달 4~5일, ‘AI 서밋 2024’ 개최

전세계 AI 석학·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AI 서밋이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다음달 4~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밋에는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사 엔비디아, 라니 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리 카이푸 시노베이션 벤처스 및 라임즈 AI 회장, 스티븐 발라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 람다 최고경영자(CEO) 등 외국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는 것을 비롯해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염재호 태계대 총장, SBVA

(전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등 국내 AI 분야 대가들도 대거 참석한다.

‘SK AI 서밋’은 SK 그룹 차원으로 매년 개최해왔던 행사를 올해 AI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열린다. 올해는 AI 전 분야의 글로벌 대가들이 모두 모여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공존법을 논의하고 AI 전 분야에 대한 생태계 강화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SK 최대원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AI 가치 사슬을 만들기 위한 공존법과 AI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의 축하 메시지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이번 서밋은 SK와 국내외 파트너사

들이 준비한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의 발표 세션과 50개의 전시, 체험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행사 첫 날인 11월 4일에는 대규모인 어모델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오픈AI의 회장 겸 사장이 참석해 AI 미래에 대해 조망한다.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사 엔비디아의 CEO는 ‘AI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11월 5일에는 K-AI 얼라이언스 중심 패널리스트 및 AI 에너지, 미래 AI 메모리,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AI 서비스 등 주제별로 AI가 촉발할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대담도 펼쳐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 C&C, 中企 ISO 획득·유지 돕는다

한국경영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SK C&C가 중소기업들의 ISO 인증 획득과 유지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

SK C&C가 국내 대표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과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 위한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 C&C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 역량과 한국경영인증원의 ESG 및 경영시스템 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사는 이에 맞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표준화기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u-타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지속가능성과 ESG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MOU 체결식’에서 신용운 ESG 전략담당(왼쪽)과 한국경영인증원(KMR) 황은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SK C&C

구(ISO)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분야 협력에 나선다. /김서현 기자 seoh@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경기 부양책에 中 ETF 강세... 개인-外人 '엇갈린 투심'

中 ETF 수익률, 최대 131.21% 기록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증시 급상승
개인투자자 '매도세' 外人 '매수세'
증권가 "단기 반등 모멘텀 지속 전망"

지난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일부 상품은 100% 대까지 반등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투자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중국ETF 순매도세를 보이는 데 반해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중국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향생테크레버리지(합성 H)로 131.21%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중국 빅테크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향생테크 지수를 2배 추종한다. 이어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이 100%의 수익률을 보여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TIGER차이나CSI300레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ETF 이미지.

리지(합성)(99.21%), KOSEF차이나A50커넥트레버리지MSCI(합성H)(91.04%), KODEX차이나심천ChiNext(합성)(90.61%), KODEX차이나H레버리지(H)(85.76%), TIGER 차이나향생테크(56.71%) 등이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같이 중국 관련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중국 증시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 시작 직전인 30일까지 25%가량 뛰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21%가량 급등했다. 홍콩 항셱지수도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

까지 2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중국 관련 ETF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은 최근 한달간 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와 TIGER 차이나향생테크 등을 각각 715억원, 366억원어치 팔아치웠다. 또한 KODEX차이나H레버리지(H)(179억원), TIGER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137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를 726억원 순매수해 가장 많이 담았고, 다음으로 TIGER 차이나향생테크를 27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TIGER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103억원), KODEX차이나향생테크(88억원) 등도 사들였다.

증권가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로 인해 단기 수급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중국 증시 반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반등 모멘텀은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적으로는 수급과 투자심리가 지배하고, 중기적으로 펀더멘털 확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중화권 증시가 10~15%대 상승 여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단기 수급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열어두고 일부 조정 시 매집 전략을 추천한다"며 "국내 중국 관련주의 경우 중국 증시 단기 반등과 부양책이 실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려면 3~6개월 경기가 격 신호 등락과 함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지난달 말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50bp 낮춰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토록 권고했다. 또한 증시안정책도 발표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3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제도가 시행됐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증권사 '방긋'... 불안정성은 '여전'

민주당 의총서 유예·폐지 목소리
금투세 시스템 구축에 423억 투자
"매물비용 고려해도 호재인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뱀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도

입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내 토론회 후 열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보완 후 시행'이나 '시행 후 보완' 주장보다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시행 유예'를 주장한 만큼 '유예' 쪽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로 발생하는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

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게 돼있다. 이번에도 유예 되면 금투세는 2023년 이후 또 한 번 더 유예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유예만으로도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금투세 도입 시 받게 될 시장의 충격에 비하면 들인 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423억원에 달한다.

리테일 규모가 큰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유예라도 당장에 빠져나가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잡을 수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될 거라고 가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관련 인력들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격이 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증권업계에는 호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금투세 유예 자체는 잠정적인 보수비용도 아끼는 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

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내국인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어야 외국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유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가 '폐지'가 아니므로, 여전히 증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유예 결정만으로도 증권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미래에셋증권, 'AI 마켓 어시스턴트'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기반 분석 리포트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전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시간 주가정보, 뉴스 등을 기반으로 종목분석을 수행하는 'AI 마켓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실시간 주가정보를 기반으로 모멘텀, 변동성 등 다양한 기술적 지표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목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임직원 누구나 사내 인프라에 구축된 'AI 마켓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관심 종목 실시간 모니터링과 특정 시점에 원하는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9월에 전사 직원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업무 어시스턴트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어시스턴트 플랫폼을 사내 오픈한 바 있다.

AI 어시스턴트 플랫폼이 사내 지식 DB기반으로 다양한 지식 검색 및 답변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이번에 오픈한 'AI마켓 어시스턴트'는 종목 체결 정보, 뉴스 등 다양한 실시간 금융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정보에 대한 인사

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가 지식 DB와 실시간 마켓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향후 다양한 AI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이 AI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보안환경 구축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엄격한 보안 요건을 갖춘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마켓 어시스턴트'도 앞서 오픈한 업무 어시스턴트와 동일하게 보안 요건을 갖춘 내부망 구축형 LLM 기반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서유석, 아일랜드서 펀드산업 성장전략 논의

(금투협회장)

제37차 IIFA 연차총회 참석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협회장(사진)이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37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서유석 회장은 국내외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각국 자산운용협회 수장 및 업계관계자들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 펀드산업의 위기 대응 방안 및 공조,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IFA는 아시아, 북중남미, 유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39개국 41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자산운용협회 대표단체다. 1987년 창립 이래 회원국 간 이해증진, 펀드관련 정책공조 및 정보공유, 국제기구에 업계 의견 대변 등 글로벌 펀



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 펀드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주

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글로벌 펀드 규제 동향, 지속 가능성과 책임 투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의뿐만 아니라, 차기 이사회 및 사무국 선출, 주요 워킹 그룹 위원회 구성 등 국제자산운용협회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중 이어 日 시장 공략... 韓 게임사, 일본 기업과 협업 나서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2'
日 액션게임 기업과 콜래버 계약
크래프톤 개발사 포켓페어와
팰월드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넥슨 日서 '넥슨플러그' 서비스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도쿄 게임쇼 현장. /넥슨

최근 일본 도쿄 게임쇼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일본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작한 '2024 도쿄 게임쇼'가 29일 막을 내리면서 중국에 이어 일본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시장 점유하고자 하는 게임 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쿄 게임쇼는 1996년부터 일본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가 주최해 매년 열리는 게임 박람회다. 중국의 차이나조이, 유럽 게임스컴과 함께 세계적인 게임쇼 중 하나로 손꼽힌다.

CESA의 집계 발표에 따르면 이번 '2024 도쿄 게임쇼' 현장 방문자는 총 27만473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총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것 같다는 CESA의 예상보다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방문한 것이다. 도쿄 게임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게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네오위즈는 일본 기업과 지식재산권(IP) 콜래버를 진행한다. 네오위즈는 최근 자사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인 '브라운더스트2'와 일본 액션 게임 '시노비 마스터 섬란 카구라 뉴 링크'의 콜래버 계약을 체결했다. '시노비 마스터 섬란 카구라 뉴 링크' 게임 시리즈 중

초기 시리즈 인기 캐릭터를 선별,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는 게 네오위즈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말 네오위즈는 음악 콘텐츠와 일본 게임 IP를 활용한 콜래버 계약을 맺었다. 네오위즈 대표 리듬 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와 일본 게임 개발사 반다이남코가 개발한 '철권' 게임이 콜래버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콜래버를 통해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에서 철권 시리즈의 인기곡 12종을 다운로드 가능한 음악 콘텐츠로 제공한다. 단순 IP 콜래버를 넘어 일본 게임사

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크래프톤은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와 '팰월드'에 대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팰월드'는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넓은 세계를 탐험하며 생존에 필요한 도구와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가는 게임이다. 100종이 넘는 생명체인 '팰'을 수집해 전투, 건축, 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팰월드 IP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원작의 주요 재미요

소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충실히 재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서비스 확장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곳도 있다.

넥슨은 지난 25일부터 자사가 2005년부터 개발한 런처 프로그램 '넥슨플러그'의 일본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런처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여러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게임을 손쉽게 설치하고 업데이트해, 게임 서비스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배준영 넥슨 인텔리전스랩스본부장은 "넥슨플러그 개편과 일본 서비스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자사의 하드코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이번 '2024 도쿄 게임쇼'에 선보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게임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120분에 달하면서 현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해리스 당선 땀 車·배터리·방위 '청신호'

산업연 '美 대선' 국내산업 영향
친환경·탈탄소 전환정책 강화 전망
트럼프 당선 땀 배터리 불확실성 확대
IRA 세액공제, 상하원 총선 결과 중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뉴시스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청신호가 켜지는 반면, 철강·화학·반도체 분야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당선시엔 배터리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동차·철강 관세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미실현자본이득세, 공공의료보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통령 시기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만큼, 친환경·탈탄소 전환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대로, 트럼프 진형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화석연료 산업 부흥 입장이다.

대중국 견제의 경우 방법론은 다르지만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봤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2019년)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50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달

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및 자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등 한국의 8대 주력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해리스 당선 시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과 주요국 보안 공급망 진입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조미세 공정 및 AI(인공지능) 등 첨단 영역에

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선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처리되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CJ대한통운, 전투기 2대 태국에 '성공 운송'

주요부품 분해 후 육상·항공 운송
현지서 완성체로 재조립 등 수행

CJ대한통운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T-50TH 전투기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 방산 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KAI에서 출하한 전투기가 태국 따클리(Takhli)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주요 부품들을 분해한 뒤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현지 하역 및 육상운송을 거쳐 도착지에서 완성체로 재조립하는 고난이도 물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한국 물류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전투기와 같은 방위산업물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물류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운송 중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파손

될 경우 다시 생산·조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운송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류업계에서 최고난도 영역으로 꼽힌다.

CJ대한통운은 화물 자체 속성과 운송수단, 도로상태, 기후변화 등의 외부 요인을 종합 분석해 안정적인 물류를 수행했다. 육상 운송 시에는 무진동 트레일러를 투입해 주행 중 진동과 충격을 줄이고 특수 방수커버를 덮어 우천 및 부식 피해를 예방했다. 항공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난기류에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탄성벨트 활용한 고정 작업도 진행했다.

태국 현지에서는 화물차량 전후방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 태국법인과 태국 공군의 컨보이차량 경호를 받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 CEO 300여명 제주서 해외진출 모색

중기중앙회, 오늘 제주서 리더스포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여 명이 제주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미래 등을 준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 해비치 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가하는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열린 '대한민

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17회차를 맞은 리더스포럼은 첫째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2일차에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부호 주한 베트남대사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와 이정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024 미국대선 그리고 반도체 주권국가' 등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강이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G20, 생태계 보전 주민참여 강조 플라스틱 오염대응·기후적응 강화

환경부,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3년만의 선언문... 협력 방향 제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확대 촉구
폐기물 관리·순환경제 확산 논의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긴 이번 선언문은 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선언문은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자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의 경우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18일과 19일 양 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는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이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한우 수급안정·중장기 발전대책 적극 추진

축산정책관 주재 수급안정TF 첫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우 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



임실의 한 축산농가의 한우들. /뉴스1

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선 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종교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농기자재로 글로벌 시장 선도

한국농어촌공사, 수출 활로 개척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됐다.

농어촌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박람

회에 참가한 국내 25개 농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62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내달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안전보건공단

색으로 산업재해 예방 각종 안전표지 한 눈에

안전보건공단은 7일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3개 기관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 등을 맡는다. 협회는 개발 자문과 교육, 삼화페인트공업은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올해 쌀 생산량 1.2% 하락 전망 재배면적 20년 전비 70% 감소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2022년부터 3년 연속 생산량 축소
예상 생산량 충남→전남→전북 순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인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t)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충남 당진을 찾아 벼 작황을 둘러보고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락작물직불제 및 농타작물재배 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kg으로 1년 전의 523kg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낫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낫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권익위, 연말까지 서울 등 확대 계획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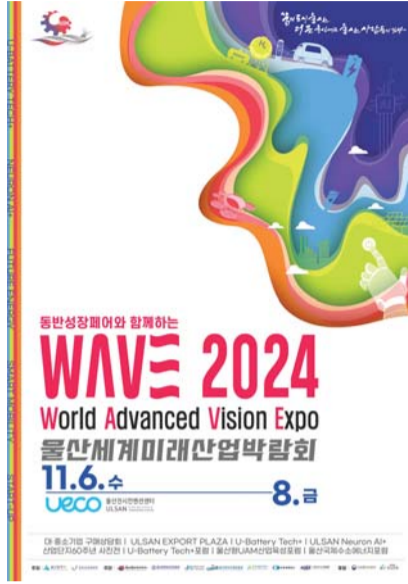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7개 행사 통합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산업 경쟁력 과시

내달 6일~8일 UECO서 열려
울산 주력산업 등 대대적 전시
국제 토론회·기조강연 등 예정



울산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는 기존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이차전지산업 전시회, 국제수소에너지 토론회(포럼),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성 토론회(포럼), 수출·구매상담회 등 7개 행사를 통합해 울산 최대 국제 산업박람회로 거듭난다.

이번 박람회는 울산의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첨단 기술을 대대적으로 전

시하며, 총 5개 주제 구역(테마 존)으로 구성됐다.

▲울산 배터리 테크플러스(U-BATTERY TECH+) 구역(이차전지 산업의 전주기 공급망) ▲뉴런 에이아플러스(Neuron AI)+ 구역(인공지능 기반 미래 신산업) ▲지능형이동수단(스마트모빌리티) 구역(도심 항공 이동수단,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에너지 구역(수소·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새싹기업(스타트업) 구역 7년 이내 혁신 기술 보유 새싹기업 등이다.

고려아연, 삼성SDI, LS M2M, SK 에너지, S-oil, 현대자동차 등 울산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참가해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다양한 국제 토론회(포럼)도 개최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1월 7일에는 U-BATTERY TECH+토론회(포럼),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

성 토론회(포럼), 8일에는 울산국제수소에너지토론회(포럼)가 열린다.

세계적 선도기업의 최고급 연사들이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저명한 연사들이 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이밖에 초청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대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11월 5일(화)까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바로 관람이 가능하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농촌협약 공모에 3곳 선정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3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6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3개 시군 농촌지역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광양시는 봉강면 등 6개 지구, 담양군은 금성면 등 6개 지구, 장성군은 장성읍 등 6개 지구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보러오세요"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
6개 분야, 46개 단위 행사 펼쳐져
행사 주제 '생태탐험·어린이 놀이터'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강진만생태공원(강진군 강진읍 생태공원길 47)에서 개최된다.

갈대축제는 남해안 최대 생태 다양성의 보고인 강진만생태공원의 품속에서 갈대와 문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 관광 축제로, 모두 6개 분야, 46개의 단위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식은 26일(토) 저녁 5시부터 시작되며 가수 진옥, 조정민, 손태진이 출연해 화려한 막을 올린다.

'갈대의 추억, 살아있는 생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572종 생명의 보고인 강진만의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갈대로드 생태탐험대'와 함께 '어린이에게는 즐거움을, 관광객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흔치 않은 힐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갈대로드 생태탐험대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생태 해설사의 재치 넘치는 설명과 함께하는 생생한 탐방으로 갯벌 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껴보는 '갈대밭 힐링 산책길'에는 양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에는 '갈대로드 달빛 야행'이 펼쳐지며 흔치 않은 가을밤의 낭만을 수놓는다.

9일간의 축제기간동안 대형 음식부스 3곳에서 향토음식관이 운영되며, 강진군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강진 농특산물 판매관인 '초록민음 직거래 장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군민 주도형 자율장터가 운영돼 먹고 쇼핑하는 즐거움도 추가된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페스티벌'

오는 19일~20일 열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이 19~20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빛가람 10년, 추억을 담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혁신도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며, 지역 상생발전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첫날엔 개막식에 앞서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공연, 청소년 K-팝댄스대회,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전남도, 나주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고 온가족이 즐길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나주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0일엔 빛가람동 마을합창단과 장구난타 공연,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어린이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 특성에 맞춰 준비한 어린이 놀이터(에어비운스)와 체력존, 힐링 캠프존, 푸드존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개막식 퍼포먼스 모습.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10일간의 여정 마무리

방문객 수 총 42만여 명 집계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10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산청한방약초축제는 국내외 방문객 수가 총 4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열렸던 폐막식 식전 행사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밴드 '비상'의 공연과 '바투카타'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공식 행사에서는 축제의 이모저모를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과 이승화산청 군수의 폐막사 그리고 개막식 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창작판타지공연 '허준 동의보감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DJ 디스코 핑키의 공연이 이어지며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막을 내렸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산청한방약초축제는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끌어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48만여 명 방문

역대 최대 해외공연단 참석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148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대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란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35개 단체 해외공연단이 참가하고,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를 축제장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존에서는 안동지역 농특산물과 탈춤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 소재를 활용한 탈춤 축제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저렴하게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 확대, 공간 확장에 따른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 활성화, 볼거리·즐거거리·살거리·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졌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탈춤' 17개 팀을 축제 기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해외에서 참가한 많은 공연단은 축제 기간 중 19회에 걸쳐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하며 전 세계의 이색적인 탈과 공연 복장, 악기,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인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는 웅부객주로드페스티벌을 개최해 버스킹 공연, 음식축제, 맥주축제,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펼쳐졌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전남도

관광객 유치활동 박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최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4'에 참가해 일본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섰다.

투어리즘 EXPO 재팬은 일본 최대 국제 여행박람회로, 전 세계 80개국과 1300여 기업단체가 참가했고, 18만 명이 이상이 방문했다.

도와 관광재단은 B2B 상담을 통해 항공사 진여와 현지 여행사(HIS, 한류, JTB, 삼진트래블 등)와 홍보마케팅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에 전남의 미식, 웰니스, 매력 발산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

카카오톡으로 민원·소통해요

경남도는 8일부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을 운영한다. 앞으로는 도민들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과 도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민은 QR 코드로 카카오톡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채널로 입장해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속히 처리되고 주말, 공휴일,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내용은 다음날 근무일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 열린다

대구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서 '스타트업 아레나(Start-up Arena)'를 동시 개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스타트업 아레나'는 FIX 2024의 새로 신설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5개사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자, 바이어가 참여하는 IR 피칭,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김삼복 기자

‘美 재거스’ 국내 상륙... ‘프리미엄 버거’ 시장, 파이 키운다

**현대그린푸드
평택 미군기지에 ‘재거스’ 오픈
버거 등 총 22종... ‘가성비’ 장점
쉐이크·슈퍼두퍼 등 업계 포화
‘시장경쟁 치열... 차별화 앞세워야’**



재거스버거 외부 전경.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가 미국 버거 브랜드 ‘재거스(JAGGERS)’를 국내에 선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버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30일 미국 캐주얼 수제버거 브랜드 ‘재거스’의 글로벌 1호점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USAG 험프리스)에 오픈했다. 재거스가 미국 이외 국가에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거스는 미국 1위 스테이크 전문 브랜드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창업자 켄트 테일러가 만든 수제버거 브랜드로 인디애나,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남부와 중동부 주를 중심으로 1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모든 비프버거에 소고기 패티가 두 장씩 들어가는 등 푸짐한 양이 특징이다.

재거스 험프리스점은 165㎡(약 50평, 70석 규모)로, 비프버거와 치킨버거 등 버거 14종과 감자튀김·맥앤치즈·샐러드·쉐이크 등을 비롯한 사이드 메뉴와 음료 22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크레이지 굿 치즈버거’(약 1만 3100원), ‘스파이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9200원) 등이며, 5300원 가량을 추가하면 감자튀김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세트 메뉴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재거스의 강점은 가성비다. 더블 패티에 수제 조리 방식임에도

국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메뉴보다 가격이 10% 가량 저렴하다.

현대그린푸드는 1호 매장인 험프리스점에서 재거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향후 국내 추가적인 매장 오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에는 SPC그룹의 ‘쉐이크쉑’과 BHC그룹의 ‘슈퍼두퍼’, 한화켄러리아의 ‘파이브가이즈’, ‘고든램지 버거’ 등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 트랜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진출 테스트베드로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를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에 한국은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높은 만큼 시장 반응을 살피기 좋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는 지난해 국내 햄버거 시장의 규모를 약 4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올해는 5조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거스가 합류하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버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쉐이크쉑과 파이브가이즈, 슈퍼두퍼, 고든램지 버거는 매장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있다.

특히 김동선 한화켄러리아 부사장 주도로 들어온 파이브가이즈는 강남, 여의도,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에 이어 판교에도 점포를 오픈했다. 2028년까지 15개 점포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진출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도쿄에 1호점을 오픈하고 향후 7년간 20

개 이상의 파이브가이즈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히히수 SPC그룹 부사장이 맡고 있는 쉐이크쉑은 국내에 27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개 신규 매장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SPC파리크라상은 쉐이크쉑 한국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빅바이트컴퍼니’를 신설했다. 빅바이트컴퍼니의 작년 12월 매출액은 약 90억원, 영업이익은 3190만원이다. 한달 매출액을 연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년에 1000억원 초반대 매출을 쉐이크쉑으로 내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거스의 상륙으로 프리미엄 버거 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이라며 “특색있고 차별화된 맛을 내지 않는다면 업계 우위를 선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대우산업개발의 자회사인 GT가 론칭한 버거 브랜드 ‘굿스터프터리’의 경우 초기에는 ‘오바마 버거’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국내 진출 5개월만에 철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카누 캡슐커피 5종 신규 출시

**동서식품, 3종은 네스프레소 호환
이터널 마운틴, 진한 ‘초콜릿 풍미’**

동서식품은 카누 캡슐커피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카누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 2종(카누 이터널 마운틴, 카누 세레니티 문 디카페인)과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3종(카누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카누 싱글 오리진 인도네시아)이다.

카누 이터널 마운틴은 강하게 로스팅한 원두를 블렌딩하여 진한 초콜릿의 풍미를 담았다. 카누 세레니티 문 디카페인 제품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하여 청사과처럼 산뜻하면서도 깔끔한 부드러운 산미를 즐길 수 있으며 디카페인 제품으로 저녁에 마셔도 부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 선보이는 네스프레소 호환 캡

슐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적인 커피산지에서 엄선한 단일 품종 원두(싱글 오리진)를 사용하였다. 카누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는 기분 좋은 산미와 은은한 꽃향기가,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는 균형잡힌 바디감과 과일의 상큼함, 견과류의 고소함이 특징이다. 카누 싱글 오리진 인도네시아는 목직함 바디와 크림리한 단맛의 복합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다.

신제품을 포함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은 총 13종,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은 총 12종으로 다크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아이스, 디카페인, 싱글 오리진 등 소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신제품 가격은 카누 전용 캡슐 2종은 각 7900원(10개입),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3종은 각 7490원(10개입)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매장 전경.

/롯데마트

롯데마트, 삼겹살·와규 등 50% 할인

10일부터 신선·가공식품 할인행사

롯데마트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주요 신선·가공식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휴가 끝난 뒤 집밥을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축산·과일·델리·가공식품 등 핵심 집밥 재료와 반찬 위주로 준비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전 점에서 ‘캐나다산 삼겹살, 목심(각 100g/냉장)’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각 990원에 특가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한정 판매되며, 1인당 2팩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호주산 청정 와규 전품목’에 대해 행사카드(롯데/신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요리하다 제주 흑돼지 불고기 2종(각 1kg/냉장)’과 ‘한우 1등급 국거리/불고기(1kg/냉장)’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각 50%, 40% 할인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글로벌 ‘하이퍼’ 판매처 확장... 할인 프로모션

BAT로스만스, 전국 편의점 판매

BAT로스만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글로벌(glo)’가 신제품 ‘하이퍼’의 판매처를 전국 편의점으로 확장하고, 이를 기념하는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매처 확대로 소비자들은 하이퍼와 하이퍼 프로로 구성된 ‘하이퍼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에 이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주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전국 편의점뿐 아니라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벌’,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하이퍼 프로’는 지난 5월 출시된 프리미엄형 모델로 짧은 시간 빠르고 균일하게 스틱을 가열하는 히트부스트 기술과 원하는 가열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테이스트셀렉 다이얼, 잔여 사용 시간, 배터리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지뷰 스크린이 탑재돼 있다.

/신원선 기자

하림, 성수동서 ‘용가리가 사라졌다’ 팝업

‘용가리 치킨’ 출시 25주년 기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용가리 치킨’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7일부터 서울 성수동에 ‘용가리가 사라졌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용가리가 사라졌다’ 팝업스토어는 언젠가부터 기억 속에서 사라진 맛 친구 ‘용가리’를 추억하며 다시 찾아 나서

는 대형 붐박스 라디오, 닥트 던지기와 펌프게임 등 온몸으로 푹푹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요소들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용가리 치킨’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길 ‘치맥’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널 라부르켓 립밤 신제품 SOS·굿나잇 2종 출시

전 세계에서 2분에 1개씩 팔리는 ‘라부르켓 립밤’ 신제품이 나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스웨덴 네츄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라부르켓(L:A BRUKET)’은 환절기 시즌을 맞아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립밤 신제품을 출시하고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라부르켓은 2008년 스웨덴 서부 해안가 마을 바르베리에서 설립된 스킨케어 브랜드로 지난 2020년 국내에 론칭했다. 스웨덴 서해안의 혹독한 추위와 거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청정해협의 해초, 바다 소금 등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해 스웨덴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라부르켓 ‘아몬드 코코넛 립밤’은 전 세계에서 2분에 1개씩 팔릴 만큼 브랜드 대표 인기 제품으로 꼽힌다. 일명 ‘딱풀 립밤’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뛰어난 보습과 진정 효과, 세련된 패키지, 대용량 사이즈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립 케어 시장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립 케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8억 3000만 달러(약 3조 8000억원)로 전년 대비 8.8% 늘어났고, 2025년에는 32억 8000만 달러(약 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웰빙 콘셉트로 ‘SOS 립밤’, ‘굿나잇 립밤’ 등 2종이다. 자연에서 유래한 향을 사용했으며 보습은 물론 셀프 홈케어 효과까지 주는 제품이다. 판매 가격은 2만 7000원대이다.

/최빛나 기자

잘 나가는 뷰티 디바이스... 韓, 차세대 신제품 경쟁 치열

에이피알 '하이 포커스 샷' 등 공개
달바 '시그니처 올빼라 더블 샷' 선보
동국제약 더마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신제품 출시 예정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뷰티 테크를 발전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7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강자'로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는 올해 9월 셋째 주 기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50만 대를 돌파했다. 특히 해외 시장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겨 전체 판매에서 해외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또 지난 2023년 같은 시점 대비 1년 만에 해외 누적 판매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누적 매출액 304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반기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8억원이다. 이 가운데 '뷰티 디바이스'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1370억원으로, 해당 매출이 에이피알 전체 매출에서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

/에이피알

차지하는 비중은 44.3%다.

브랜드 대표 제품 '부스터 프로'의 경우 지난 9월 2일 미국 최대 e커머스 아마존의 '주름&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부문에서 인기 품목 1위에 올랐다. 에이피알은 올해 2월부터 미국에서 부스터 프로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4월과 7월 각각 아마존의 톱딜, 프라임데이 등을 통해 소비자 인기를 입증해 왔다.

에이피알은 미국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를 지속함과 동시에 중화권 국가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뤄 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5월 중

국 현지에서 부스터 프로를 출시했다. 이후 중국 618쇼핑축제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마련해 총 3회에 걸쳐 누적 매출액 36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새로운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최근 공개한 신제품 '울트라톤 40.68', 초음파 뷰티 디바이스 '하이 포커스 샷' 등의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도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한다. 달바는 지난 9월 말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열린 국

제 행사 '월드 웰니스 위켄드'에서 '시그니처 올빼라 더블 샷'을 처음 소개했다.

달바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국내 최초 두 개의 헤드를 하나의 기기에 설치한 올인원 디바이스다. 더블 샷으로 사용 시간은 두 배로 줄이고, 관리 효과도 두 배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달바는 지난 8월에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하얏트호텔의 주요 파트너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뷰티 클래스를 진행하는 등 K뷰티 인기를 이끌어 갈 차세대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이다. 실제로 달바의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성장해 536억원을 기록했다. 큰 폭의 증가세에 따라 달바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해외 매출이 1300억원 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신개념 제품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센텔리안24에 따르면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은 최신 기술력에 전통적인 피부 관리법인 괄사를 접목한 3중 고주파 뷰티 디바이스다. 3중 고주파 모드, 흡수 모드, 탄력 모드, 괄사 테크닉 등을 얼굴과 바디에 활용 가능하다.

센텔리안24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마데카 프라임'을 출시하며 뷰티 디바

이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냈다. 마데카 프라임 티글 샷, 탕글 샷,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등으로 제품군을 잇따라 확장한 것이다. 브랜드 대표 제품 마데카 프라임의 경우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액 2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센텔리안24를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을 기반으로 오는 2025년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센텔리안24를 중심으로 한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3%에 이른다. 2023년 기준 해당 사업 매출액은 200억원 대를 달성하는 등 동국제약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국제약의 뷰티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선보이는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의 이미지컷. /동국제약

삼양홀딩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역량 강화

진코어 공동연구 계약 체결
항암제 등 파이프라인 확대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이 유전자 신약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에 나선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최근 유전자 가위 전문기업 진코어와 '유전자 치료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관한 것으로, 양사는 각사의 유전자 전달 기술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본격적인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이 독자 개발한 '센스(SENS)'는 약물 전달 기술(DDS) 플랫폼이다. 핵산 기반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교정 약물 등을 간, 폐, 비장 등 다양한 조직의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췄다. 센

스를 활용한 백신, 항암제 등을 개발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진코어는 혁신적인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인 '타겟(TaRGET)'을 보유하고 있다. 진코어의 'TaRGET'은 지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최우수 성과에 선정되고,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 약 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은 정밀한 유전자 교정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진코어는 망막 질환, 신경근육 질환, 뇌신경, 간 유전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이러한 양사의 강점을 융합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성 높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지난 1일 개최한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산업에 도전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래 성장 전략으로 의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일찍이 약물 전달 기술(DDS)에 집중해 왔다. 센스(SENS)에 앞서 폴리머릭 미셀(PM) 기술, 고분자 나노 입자(PNP) 기술, 약물 지속 방출 기술인 SR 등을 개발했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도 출시한 것이다. 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의 1차 치료에 쓰이는 제넥솔PM주사제, 나녹셀 M주사제 등이 대표적이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현재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체내 흡수율 향상, 안정성 개선, 제형 개선 등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및 혈액암 항암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제품

LG생건,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 출시

LG생활건강은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에서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프레시안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는 크림 제형을 갖춘 비건 블러셔로 적은 양을 얇게 발라 조명을 켜 듯 화사한 얼굴을 완성해 준다. 비건 스킨케어링 성분을 68%

함유해 어떤 피부에도 들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아이돌 메이크업 장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K팝 스타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나겸씨가 제품 개발에 참여해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비글로우 스틱 웨딩' 선보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가 '비글로우 스틱 웨딩'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에스쁘아에 따르면 '비글로우 스틱 웨딩'은 막대 형태의 음영 메이크업 제품이다.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제형과 낮은 명도의 발색이 얼굴 윤곽을 보다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완성해 준

다. 피부 톤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쿨 그레이'와 '뉴트럴 그레이' 총 2가지로 구성됐다.

또 이번 신제품은 에스쁘아만의 기술력으로 높은 밀착력을 갖췄고 비건 클린 처방으로 피부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삼바, 차별화 CDMO 경쟁력 뽐낸다

(위탁개발생산)

2024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
주요위치 부스 마련... '월 그래픽' 구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024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CPHI 2024)'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부터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해 왔다. 이

번 행사에서는 전시장 주요 위치에 부스를 설치해 세계 여러 나라의 고객과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스 벽면에는 '월 그래픽'을 구현해 회사의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조했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5공장을 포함해 78만4000리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삼성바이오로직스 'CPHI 2024' 단독 부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객맞춤형 위탁개발(CDO) 플랫폼, 항체·약물 접합체(ADC) 포트폴리오 등 차별화한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어린이용 '콜록키즈펜시럽'

GC녹십자는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콜록키즈펜시럽'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GC녹십자가 이번에 출시한 '콜록키즈펜시럽'은 '콜록' 제품군의 첫 어린이용 제품으로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발열, 감기, 두통, 통증, 신경통, 근육통 등을 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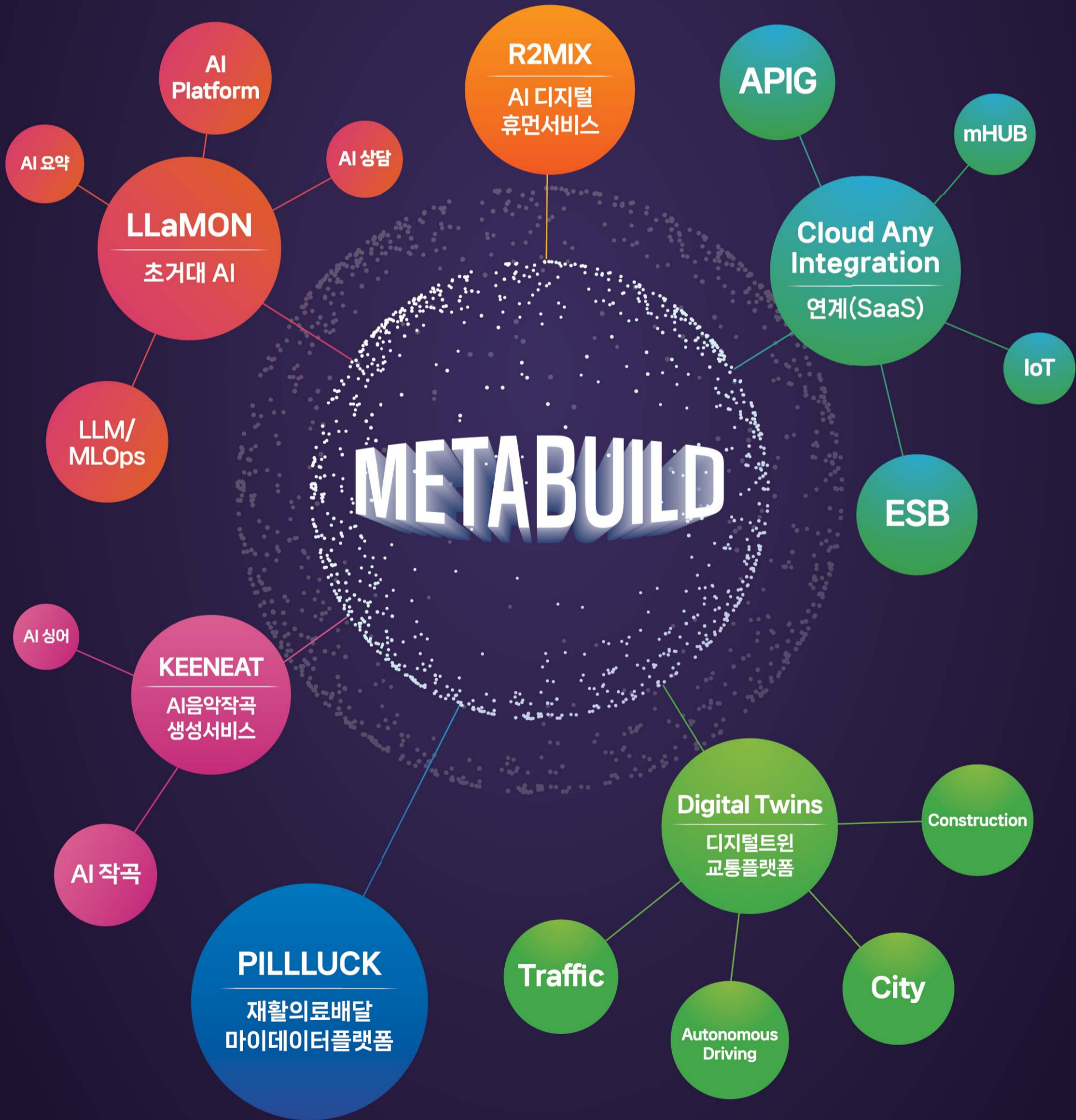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이와 함께 GC녹십자는 체리향을 첨가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콜록키즈펜시럽'은 5ml 용량으로 소포장됐는데, 막대형으로 구성돼 1회 복용 시 1포씩 그대로 찌서 복용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신한은행,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

신한은행은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출산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첫번째)이 임직원들과 '기저귀 케이크'를 제작하고 있다. /신한은행



카카오모빌리티-대한적십자사, 나눔문화 확산 맞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제휴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구호 활동들을 소개하고,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 페이지 등을 운영 및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대아청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 출연

도매법인 대아청과가 배추 생산 안정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원을 출연했다. 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대아청과가 출연한 협력기금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대아청과 이상용 대표(왼쪽)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태용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업협력재단



티웨이항공, 파독 근로자 고국방문 지원

티웨이항공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4회 인종차별철폐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파독 근로자 고국 방문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파독 근로자의 조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항공편에 대한 30% 운임 할인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다. /티웨이항공



중진공, '세대공감 기업가정신 워크숍' 성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5일 이틀간 경북 경산에 있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2024 세대공감 기업가정신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전국 11개 중소기업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특히, 부모자녀 간 승계기업 뿐만 아니라 부부승계, 직원승계 등 다양한 형태의 승계기업이 참여해 워크숍에 의미를 더했다. /중진공

LG전자, 한글벽 프로젝트 후원... '담대한 도전' 수놓아

美 맨해튼서 한글벽화 공개 'Life's Good' 메시지 전해

LG전자가 지원한 세계 최대 한글벽화가 미국에서 처음 공개됐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가로 8m, 높이 22m의 한글벽화가 세워졌다.

한글벽 프로젝트는 강익중 작가가 뉴욕한국문화원과 손잡고 세계 최대 한글 공공미술 작품인 한글벽화를 문화원 신청사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LG전자가美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세계 최대 '한글벽화'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공개된 한글벽화. /LG전자

벽화에는 약 2만자의 한글이 새겨져 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주제로

로 전세계에서 모인 한글 작품 중 선정된 1000점이 활용됐다.

LG전자는 캠페인 홈페이지를 제작을 비롯, 전세계에서 글귀를 모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글 입력기와 작품 생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구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원은 820만여명에 달한다.

LG전자는 한글벽 작품에 '낙관적인 태도로 담대한 도전을 하면 삶은 좋아질 거야'라는 글귀로 브랜드 슬로건인 'Life's Good'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외과 교수 우수 구연상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9월 21일 서울대학교 병원의생명연구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2024대 한중앙의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안정신 외과 교수(사진)가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안정신 교수는 '유방암 다중 샘플 분석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링'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쓰오일, 올수 친환경 원료 확보... SAF 생산 활용

120t 폐식용유 공급 계약 체결

에쓰오일이 폐식용유 온라인 수거 플랫폼업체인 올수와 협력 관계를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을 구축한다.

에쓰오일은 올수에서 120톤의 폐식용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수에서 공급받은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을 위한 코프로세싱(Co-processing)에 이용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올수에 7억원의 자본 투자를 단행했



정영광 에쓰오일 신사업부부장(왼쪽)과 김기욱 올수 대표가 친환경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다. 올수는 불투명하고 낙후된 기존의 폐식용유 수거시스템을 개선한 온라인 수거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폐식용유 수거 시장을 체계화하여 폐식용유 재활용률을

높이는 친환경 기업이다.

올수는 전용 앱을 개발하여 식당, 프랜차이즈 기업 등 요식업소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를 시세에 맞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경매시스템, 수거 파트너와 식당을 직접 연결해주는 지정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시흥에 집하장을 설립해 직접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 "SAF 생태계 확장을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제품 공급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자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네오플, 제주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

초록우산 3.6억 규모 업무협약

넥슨의 온라인 게임 개발 자회사 네오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초록우산과 함께 총 3억6000만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 내 발달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네오플은 이번 협약을 통해 3년간 제주도 내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 총 40명에게 아동 1인당 연간 300만원의 발달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초록우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받은 지원 대상 아동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사의 자격을 검증한다. 언어, 미술, 음악, 행동, 감각 등 다양한 치료에 대한 일지를 검토하여 치료비 지원 효과를 확인한다.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제주도 내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



정일영 네오플 경영지원총괄 이사(왼쪽부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 협약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넥슨

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카카오메이커스, 화훼농가 판로 확대

부경원에농협 상생 협약 체결

카카오가 화훼농가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카카오의 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가 지난 4일 부경원에농협과 '화훼농가 돕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 속

화훼 소비 정착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가정의 달, 추석 등 기획전을 진행하고 비수기에도 유찰되는 꽃 없이 제값을 다하도록 온라인 홍보와 판매전에 힘을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대동생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9회 감해꽃축제에 참석해 현장 부스 운영과 온·오프라



김정민 카카오 메이커스제품 리더(왼쪽)와 최성환 부경원에농협 조합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농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한국기술교육대 'DINNO 2024' 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링크(LINC) 3.0사업단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2024'에 참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등 최첨단 공학작품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졸업연구작품 8종, 학생 및 교원 창업 작품 3종, 연구실 성과물 1종, 교내 부속기관 성과물 1종 등이다. /김대환 기자 kdh@

인사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대구경북지사 주재기자 △구미김천 김시훈 △포항경북 최지웅
- ◆뉴스드림 △편집국장 김인수
- ◆폴리뉴스 △마케팅총괄본부장(부사장) 김대환
- ◆전북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이사·국장 강인석 △편집국장 전오열

부음

- ▲차상일씨 별세, 차경식(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6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02-2276-7695.
- ▲김명기씨 별세, 김성진(한스경제스포츠부장)씨 장인상 = 7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02-2030-4459.
- ▲이병원 씨 별세, 이선태(MBC 대표이사) 이현숙 이현선 씨 부친상 = 7일,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일. 055-233-5131.
- ▲최우호(YTN 영상국영상아카이브팀 부장)씨 별세, 봉정선 씨 남편상, 최수경 최지준 최주혁 씨 부친상 = 7일 오전 5시 20분,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02-2227-7500.
- ▲김경식씨 별세, 권남순씨 남편상, 김원배(전자신문 전자모빌리티부장)·김인순씨 부친상 =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02-2072-2011.

위스키의 본고장에서 양조학을 배우다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15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생명의 물, 위스키. 영국 스코틀랜드에 합법적인 위스키 증류소가 설립된 것은 1824년으로 알려진다. 2024년을 기해 200년이 되는 긴 세월은 스코틀랜드가 쌓은 위스키 제조의 명성을 증명하는 셈이다.

위스키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술과 그 생산자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 방식의 현대화, 표준화를 이뤄냈다. 스코틀랜드 역시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위스키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심에는 헤리엇와트대학이 있다. 헤리엇와트대학은 2018년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he Year(올해의 세계화 대학)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양조·증류 과정은 에딘버러 캠퍼스 혹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 수료할 수 있으며 학부 과정은 4년, 석사 과정은 논문 작성을 포함해 1년간 진행된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과정을 마친 줄

업생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양조장과 증류소 또한 헤리엇와트 출신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다양한 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골든블루 마스터블랜드 프로젝트 장학생들을 포함해 오미자와인과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하는 이종기 제이엘 대표, 한국식품연구원의 김태완 박사 등이 헤리엇 와트에서 양조·증류 과정을 수료했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석사 과정에서는 양조용 곡물 발아, 담금 및 발효, 맥주 숙성 및 제품화, 증류와 위스키 숙성 등 다양한 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식품공학 및 미생물학, 경영사 과정 등의 선택 과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실습과 견학,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류 산업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필자 또한 헤리엇와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글렌모렌지증류소의 연구원 이자 헤리엇와트 내에서 위스키를 전공하는 지도 교수의 주도 아래 발효를 끝낸 맥아

밀술(wash)을 두 번 증류해 숙성 직전의 위스키 원액을 만들었다. 발효와 증류 과정에서 휘발성 향미 성분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무척 송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헤리엇와트에서의 배움은 귀국 후 국내 맥주 양조장 근무에 실속 있게 활용되었다. 수제맥주 양조집장으로서 강렬한 흡향기와 탁한 외관으로 유명한 'Hazy(헤이지) IPA', 은은한 바나나 향기가 일품인 '휘트 에일(Wheat Ale)' 등을 꾸준히 생산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순간 양조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내 위스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조 및 증류 관련 학문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위스키 생산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 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멀리 혹은 가까이 있을지 모르, 한국 위스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그날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꽃 헤리엇와트대학교 양조증류학 석사, 현 골든블루 마케팅팀

말 많고 탈 많은 '세금둥둥' 한강버스



기지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명칭 공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한강버스는 마곡·잠실 내 주요 거점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박 8척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목표다. 허나 한강버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좋지 않다. 시가 '서울의 물길을 여는 새로운 교통 혁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달리, 대중교통으로서의 매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 이용시 75분이, 급행 노

선은 54분이 소요된다. 급행을 타도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와 4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금은 약 1.7배 더 비싸다. 게다가 운항 간격도 15~30분으로 긴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용으로 이용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한강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시간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나빠 시내버스에도 밀린다. 이용 실적이 저조해 폐지 수순을 밟는 한강 수상택시와 14년 만에 운항을 끝내는 한강 유람선(아라호)의 선행 사례를 증명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영실 서울시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신생 업체에 한강버스 건조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가덕중공업과 선박 6척 납품 계약을 맺은 날짜는 올 3월 28일인

데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난 4월 5일인 것을 문제 삼았다. 시가 올 4월에야 직원 등록을 한 회사와 약 178억원 상당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체 조선소도,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 조립하듯 선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버스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7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 계약 이전인 지난 3월 27일 예인선 2척(296t급, 1척당 67억원)을, 올 4월 26일 해양계기물수거선 1척(190t급, 48억원)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전자는 시가 가덕중공업을 선박 건조 업체로 선정하기 바로 전날, 후자는 계약 체결 후 한달 뒤 이뤄진 일이라 서울시의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9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티끌을 모으면 티끌에 불과하듯 뒤늦은 투자로 돈은 남아나지 않을 것. 48년생 토사구팽(兔死狗烹)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60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72년생 음주보다는 책을, 84년생 가족의 방문으로 즐거운 날.



37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행복함 미래는 없다. 49년생 돼지띠와의 거리가 있다면 성사가 길. 61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 내일을 대비해. 73년생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 85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



38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50년생 주말이라고 아침부터 업무를 가버려 여기저기 마라. 62년생 받았으면 베풀어라. 74년생 삶의 기본이 흔들릴 정도 모험은 위기를 부른다. 86년생 쉬우수록 한 번 더 숙지하라.



39년생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3년생 세월이 흘러도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 75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7년생 임대아파트가 좋은 곳에 당첨.



40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52년생 도시와 때문에 풍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64년생 지나친 관심은 연인을 지쳐 떠나게 한다. 76년생 진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니 오늘침묵. 88년생 벗이 찾아와 기쁘다.



41년생 미지의 전원주택을 그리워하지 마라 행복 끝 고생시작이 된다. 53년생 의외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다. 65년생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7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낀. 89년생 이를 수 없는 사랑이다.



42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건강이 염려된다. 54년생 도난 실물수가 있으니 남의 탓하지 말고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6년생 남의 송사에 관여하면 공 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78년생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계약을 성사. 90년생 웬만하면 비울 것.



43년생 자식의 결혼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라. 55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 67년생 노력한 만큼 소득이 창출된다. 79년생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한 단계씩 모아가 보라. 91년생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44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니 서두르지 마라. 56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 68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80년생 뭐니 뭐니 해도 빠른 정보획득이 중요. 92년생 오늘 물물교환은 하지 마라.



45년생 작은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마라. 57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을 것. 69년생 수고로움이 많아서 돌아온 재물도 만족하다. 81년생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협조자를 구하라. 93년생 옛그제 같았던 시간이 아쉽다.



46년생 일을 하게 되니 행운이 따른다. 58년생 사람에게 격려는 성과로 돌아온다. 70년생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다. 82년생 역(易)의 예측은 우주와 인간 해석에 대한 정보해석의 집약체. 94년생 정든 사람과 이별이 아쉽다.



47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59년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음. 71년생 검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83년생 종로에서 뽕 먹고 얇은 한강에다 분풀이할 것. 95년생 월급 타서 실비보험을 꼭 들도록.



김상회의四季

화무십일홍

운세와 욕심은 상관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인생의 보편적 진리라고 연결된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인데 영원히 가는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없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람의 욕심이 운세를 이기지 못하고 화무십일홍이 되고 마는 걸 자주 본다.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화무십일홍처럼 천당과 지옥을 오간 사람이 있다. 대학 졸업 후 투자금융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돈의 흐름에 눈 뜨고 재물이 궁극하다며 상담을 오곤 했다.

사주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재성이 있고 일간도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재물을 끌어오는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걱정되는 건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어서 운세를 잘못 만나면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게 눈에 보였다. 모든 사람이 힘든 지경에 빠졌던 IMF 외환위기 때 김윤을 만나면서 그의 대운이 강한 흐름을 탔다. 남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돈을 뺄 때 그는 주식에 베팅해서 거금을 벌었다. 재운은 그 뒤로도 이어져서 운세를 올라타고 지속적 수익을 냈다. 재산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고만장으로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이고 최고급 외제 차를 굴리면서 돈을 평평 써댔다. 그리고 화무십일홍의 시기가 왔다. 운세가 쇠하는 때가 온 것이다.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시점이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지만, 자만심에 취한 사람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다시 큰 베팅을 했고 재산 대부분을 날렸다. 지옥을 맛본 것이다. 노년에 들어가는 나이가 된 그는 이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운세의 흐름을 꼭 살핀다. 사람의 욕심은 운세의 조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화무십일홍은 보편적 진리다. 흥망성쇠의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알고 일을 도모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8	8	2	9	1	6
6	8	1	7	9	2	2	8	9
8	9	2	6	1	9	7	8	2
2	1	6	8	2	9	8	9	7
9	9	7	2	8	1	6	2	8
2	8	8	9	6	7	1	2	9
1	2	2	9	9	6	8	7	8
9	6	8	1	7	8	2	9	2
8	7	9	2	2	8	9	6	1

8	9	2	8	2	6	1	9	7
2	7	6	9	8	1	8	2	9
1	8	9	9	2	7	8	2	6
9	2	8	2	1	8	7	6	9
2	8	1	6	7	9	2	9	8
6	9	7	2	8	9	2	1	8
9	2	2	8	9	8	6	7	1
8	1	9	7	6	2	9	8	2
7	6	8	1	9	2	5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최식에서 한 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2년 탈수급 비율 8.6%로 확대

'디딤돌소득 포럼' 성과 발표 132가구 탈수급...476가구 소득증가 비교가구 대비 '근로시작' 3.6%p ↑

오세훈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다.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 유인 호

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 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 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주거의 변화·도로의 혁신 등 스마트도시 서울 체험하세요”

서울시, 10일 '스마트라이프워크' 국내·외 147개 기업 전시관 마련 49개 기업 첨단기술 체험공간 조성

사람 중심의 동행 매력 가치를 담아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ICT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도시와 기업 관계자가 서울에 모여 최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과 사람을 연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체험한다.

서울시는 국내 혁신기업을 전 세계에 세일즈하고 미래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제적 플랫폼 '스마트라이프워크(SLW)'를 오는 10~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워크의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이다.

먼저 국내외 총 147개 혁신 기업이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 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한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쇼룸에는 총 49개 기업이 참여해 ▲일상 속 로봇 ▲주거의 변화 ▲도로의 혁신 ▲아동의 미래 ▲찾아가는 복지 ▲안전한 환경 등 총 12개 주제로 미래 도시생활에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컨셉의 공간을 조성했다.

기업전시관에는 약자동행, 혁신기술, 관광, 모빌리티를 포함 4개 분야에 총 98개 혁신기업이 동참했다. 약자동행기술존에서 포스코스틸리온은 시각 장애인용 미술품을 전시하고, 국립재활원은 침대로봇과 식사로봇 등 다양한 재활 기술을 선보인다.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국내기업이 해외도시 관계자에게 직접 발표하는 'Presentation for Your City(PYC)'이

다. 서울시는 SLW에 참가하는 해외 도시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벌이고 솔루션을 희망한 18개 해외 도시와 국내 혁신 기업의 매칭을 완료했다.

매칭된 기업은 이달 10~11일 SLW 전시관에 마련된 PYC 전용 부스에서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도시와 기업 간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매칭해주는 PYC는 SLW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시는 강조했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올해는 스마트라이프워크(SLW)의 정체성을 사람 중심에 두고 국제 행사로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동행·매력 가치를 시민들과 국내외 기업·도시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한강버스·여의도 선착장 특혜논란, 사실 아냐”

“가덕중공업, 용접공 등 인력 확보 선박 정상적 건조… 면밀 감독 중”

서울시가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해명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연내 선박 8대를 도입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민간 운영사인 이크루즈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기존의 조선소(은성중공업) 외에 추가로 지난 3월 28일 가덕중공업을 선정, 현재 2개 조선소에서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시정 질문에서 가덕중공업이 직원과 공장도 없고, 선박 건조 실적도 없어 한강버스를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오후 약식브리핑을 열고 “현재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 인력을 협력 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4개 작업장(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영암, 부산 영도)을 임대해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개 공장에는 선주감독단이 상주하면서 선박 건조 과정을 면밀하게 감독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가덕중공업은 오는 12월 2척, 내년 1월 2척, 같은해 2월 최종 2척의 선박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배를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의혹도 해명했다. 시는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의 선박 운항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작년 5월 1일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재정투입 없이 전액(300억원) 민간 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 12월까지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 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했고, 사업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시는 여의도 선착장은 유선 사업 면허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하천법에 따라 3년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4 | 해질 / 18:05

10월 8일 (화)
음력 : 9월 6일

수도권 날씨
13~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킨텍스, 17일 경기국제웹툰페어 개최

145개사 참여... 20일까지 진행

킨텍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웹툰페어는 B2C와 B2B 전시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 웹툰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B2C 전시회에서는 웹툰 제작사, 플랫폼, IP 콘텐츠, 기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분야의 145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참가업체로는 카카오펀터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다운크리에이티브',

'디씨씨엔티', 'AB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으며, 특히 AB엔터테인먼트는 인기 판타지 웹소설 '이세계 착각 헌터'의 웹툰화를 단독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3회 대한민국학생 코믹아트 웹툰공모전' 수상작과 여러 대학의 아카데미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B2B 행사에서는 웹툰 기업의 판로 개척과 IP(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가자전쟁 1년 간 이스라엘에 179억 달러 지원” /사진 뉴시스
▲中 ‘경제총괄’ 발전개혁위, 8일 기자회견... “부양책 보완효과 노려”

▲日 국회, 8일 강제불입 피해 보상법안 가결... “2000만엔씩 지급”
▲이시바 日 내각 지지율 51.6%... “2008년 아소내각 다음 낮아”



▲“이스라엘 공격 성공 단정 못 해...이란 공지에 몰려”
▲美 석유업계, 트럼프 후보에 “IRA 전면 폐지 반대” /사진 뉴시스



美 재거스 오픈
프리미엄 버거 시장
파이 키운다
니



Life

잘 나가는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경쟁 치열
L2



생태숲 가꾸고, 아동 꿈 키우고... “내일의 희망에 투자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한 공익발견 기여’를 사회공헌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기 봉사단,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임직원과 생태숲 조성 등 환경개선 프로젝트 복지시설 내 도서관 리모델링 ‘꿈도서관’ 사업 소외계층 학생 올바른 성장 위한 교육 지원도

◆임직원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및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실시한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숲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손잡고 서울 중랑천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직원들이 걸음 기부 캠페인 ‘위워크(WE:walk)’에 참여해 마련한 후원금을 활용해 동물들을 위한 열매식물을 식재하고,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며 ‘한국투자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된 ‘참벗나눔 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봉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핵심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 ‘한국투자 꿈 도서관’에서도 임직원들의 따뜻함이 발휘된다. 꿈도서관은 아동복지시설의 낙후된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식과 배움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체육대회 프로그램 중 컬링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과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해피홈 보육원 설립자 권태일 목사가 도서관 개관식에서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지난 6월 15일 한국투자증권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종합시설 ‘혜명메이빌’에서 임직원 참여 주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및 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매칭그랜트’ 기금과 본사 건물에 위치한 로봇커피 수익금을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매칭그랜트를 통해 매달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소외계층 유소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등을 위해 나눔과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관련 핵심 사업으로는 꿈도서관을 비롯해 ‘꿈을 꾸는 아이들’이 실시되고 있다. 꿈을 꾸는 아이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매월 특기·적성 개발비를 후원한다. 매년 전국 저소득층 학생 51명 지원(중·고)하고 있으며, 아동 다수가 전국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등 꿈을 이뤄내고 있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국내 K-ETS 시장조성자’ 선정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서 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호가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거래 활성화,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시장조성자 우수 회사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배출권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한국 산업계 대표로서 K-ETS 시장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4 KIS ESG 포럼’을 개최해 기후 변화가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ESG 포럼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KIS ESG 포럼은 점차 가시화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투자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최초 ‘K-ETS’ 시장조성자 선정 녹색채권 인수규모 확대 등 탄소중립에 기여 ESG위원회 설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앞장

투자 부문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서 2020년 8월부터는 탈석탄 선언에 따라 신규 석탄 관련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인수 규모도 늘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이 중심으로 녹색채권 발행과 인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2년 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녹색채권을 약 1조 2240억원 인수했고, 동일 기간 ESG 채권도 4조 2677억원 가량 인수하며 증권가 내 인수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영향 관리 차원에서는 기존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환경사회리스크 관리체계(ESRM) 도입을 검토하면서 ESG 요소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ESG 경영 확산 및 내재화 수준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5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내 증권 산업 내 ESG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ESG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관련해 회사의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내 ESG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ESG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전 그룹사에 ESG 경영 확산 및 내재화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은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집행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해임 권한을 가진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해 특정 배경, 전문성에 편향되는 것에 주의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선수단 재정비 LG...‘원클럽맨’ 최동환 등 6명 방출 /사진 뉴시스
▲K리그 파이널A 진출팀 각오 듣는다...미디어데이 16일 개최

▲‘홀런 6방’ 샌디에이고, 10-2로 다저스 완파...NLDS 1차전 패배 설욕
▲키움, 선수단 재정비 들어간다...투수 정찬헌 은퇴 결정



▲‘축구에 진심’ 광주시...잔디 탓에 홈구장 못쓰는 광주FC
▲이도현,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9차 대회 리드 은메달 /사진 뉴시스

EMPOWER EVERY POSSIBILITY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에너지로부터

